혀짧은 소리 내는 '설소대강직증'

방치땐 발음장애·얼굴변형 올 수도

혀, 입천장에 닿지 않을땐 의심해봐야

5~6세 전후 설소대 절제 수술로 치료

간혹 혀짧은 소리를 하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교스럽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혀짧은 소리는 신체적 결함일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자칫 발음장애나 얼굴변형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자세히 보면 혀 아래쪽과 입안의 바닥을 연결하는 가늘고 길쭉한 끈 같은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바로 '설소대'라고 불리는 혀와 구강을 연결하는 작은 섬유성 조직이다.

설소대는 유아기에는 혀끝 쪽에 있지만, 생후 약 2~5세에는 잇몸뼈가 자라고 치아가 나옴에 따라 점차 혀 밑쪽으로 후퇴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종종 설소대가 지나치게 짧고 넓거나 혀끝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설소대강직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유아는 자라면서 설소대가 혀 밑쪽으로 들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와 맞물리는 혼합치열기(젖니와 영구치 교환을 하는 시기)에서 설소대강직증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혀를 움직이기 힘들거나 혀를 내밀었을 때 혀끝이 뱀의 혀 모양처럼 굽어져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아이들이 간혹 있다.

짧은 설소대와 혀 아래의 연조직은 혀의 운동을 제한해 혀를 위로 올리는 운동 및 혀를 앞으로 내미는 운동에 제한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씹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발음장애가 생긴다.

또한 앞니가 벌어지거나 혀의 비정상적인 위치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치아의 배열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설근성형술**=비정상적인 설소대로 인해 발음장애가 나타나거나 유아의 수유에 방해가 될 경우, 혀의 위치 이상을 일으켜 부정교합을 야기한 경우 등은 수술을 통해 설소대를 당겨 절제하는 '설소대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아치과에서는 단순히 설소대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혀의 근육기능과 관련해 나타나는 부정교합과 발음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절제술과 더불어 혀 근육의 위치를 조금 바꾸어 주는 간단한 혀 근육 성형술(설근성형술)을 시행하고 있다. 혀는 치아 및 구강 조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성장 발육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이른 시기에 수술로 정상 위치에서 벗어난 혀를 올바르게 잡아 주어야 한다.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서 가능하며 수술시간은 약 30~40분 정도로 간단하다.

◇**언제, 어떤 경우에 수술하나**=입 밖으로 혀를 내밀게 할 때 혀끝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혀가 둥글게 구부러지고 혀끝이 갈라진 양상을 보이는 경우나 입을 벌린 채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는다면 설소대강직증을 의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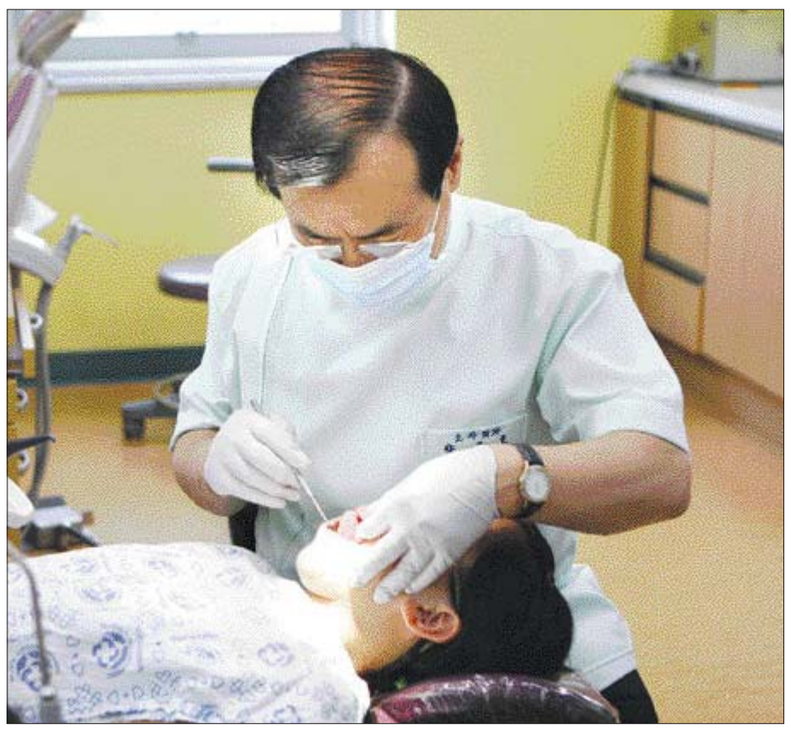
설소대는 턱뼈의 높이 성장과 함께 그 위치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말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설소대강직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성장과 함께 음식물 섭취를 위한 씹기, 발음 등 혀가 본격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설소대는 자연적으로 부착위치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 길이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근성형술은 혀의 구조적 문제로 발음에 이상이 생김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5~6세 전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물론 5~6세 이후의 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장이 끝난 성인에 있어서도 발음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하여 자주 시행되기도 한다.

소아치과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설근성형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신 마취가 아닌 시술 부위의 부분 마취를 기본으로 하며, 아이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웃음공기'라고 알려진 N2O 가스 진정법 등을 이용하면 시술이 한층 쉽다.

〈도움말 : 양규호 전남대 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양규호 소아치과 교수가 설소대가 지나치게 짧아 아기 같은 발음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하고 있다.

임산부 자궁암 치료 새 장

조선대병원 한세준 교수 서울대병원 초청 연구발표

여성 생식기 암 치료 권위자인 조선대병원 한세준 교수〈사진〉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병원 초청으로 연구발표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한세준 교수는 분당 서울대병원 초청으로 최근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환자에 대한 광역동 치료의 효과'란 주제로 발표해 갈채를 받았다.

한 교수는 임신을 원하는 20대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환자 4명에게 '동시 항암화학 광역동 치료'를 18개월~45개월 동안 시행, 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전원이 출산(2명) 또는 임신(2명) 중인 치료 효과 및 임상 경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암치료를 하면서도 병변 부위만을 제거하고, 자궁 및 생식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 교수는 먼저 광역동 치료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광감작제 포토겜 또는 포토프린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고, 광역동 치료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저용량의 카보플래틴을 정맥 투여했다.

광역동 치료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해 180-250J/cm ² 을 조사 한 후,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궁경부암은 시술 후 2~3개월 마다 자궁경부액상 세포진 검사, 질 확대 촬영술,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종양 표지물질 검사 및 필요에 따라 질 확대경 검사를 시행했으며 ▲자궁내막암은 시술 후 2~3개월 마다 자궁내막 조직검사와 종양 표지물 질검사를 시행했다.

최종 추적 검사일까지 각각 45개월, 42개월, 29개월, 1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4명의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후 추적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소견이었다.

조선대병원 한세준 교수는 동시 항암화학 광역동 치료는 기존의 암 치료(수술, 방사선 및 항암화학요법)와는 달리 고통 없이 병변 부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자궁과 생식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임신을 원하는 미산부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에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광역동치료란 광과민제인 포르피린 유도체를 정맥주사, 암조직에 광과민제가 축적되도록 유도한 후 일정량의 레이저를 조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멕시코 치과 의료진 조선대 치과병원 견학

멕시코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들이 광주의 선진 치과기술을 배우기 위해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병원을 방문했다.

멕시코 치과의사 4명과 치과기공사 6명은 조선대 치과용 정밀 장비 및 부품 기술혁신센터와 협력기업인 (주)알파덴트 및 (주)알파테크의 후원을 받아 최근 3박4일 동안 광주를 방문, 광주 첨단과학단지에 조성된 미니치과 산업클러스터 및 조선대 치대 및 치과병원을 찾아 광주 치과산업체 제품 수입 및 치과임플란트 임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특히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조선대 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를 방문해 임플란트 보철 제작, 임플란트 수술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임상과정을 둘러봤다.

전남대병원 주사제 처방률 전국서 가장 낮아

전남대병원이 전국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서 주사제를 가장 신중히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08년도 4분기 전국 병·의원 주사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44개 가운데 전남대병원이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낮은 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2005년~ 2007년도 4분기, 2008년 3분기에 이어 이번 4분기에도 외래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낮은 병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대병원의 외래주사제 평균 처방률은 2.04%로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 처방률 3.44%와 비교해 59%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어 인제대부속부산백병원 2.08%,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2.35%,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2.36%, 원광대학교부속병원 2.41%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토털 여성병원 문 열어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산부인과 신축 이전

가족이 함께 분만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개인분만실과 문화센터, 병원 직영의 쾌적한 산후조리원, 토털 케어센터까지 갖춘 고품격 여성병원이 광주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10년 동안 산모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문화산부인과가 최근 건너편으로 신축 이전해 문화여성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

문화여성병원은 이상욱·정영란·김현주·윤영돈·위승길·양정선 박사 등 산부인과 전문의 6명과 소아청소년과 성준승, 마취통증의학과 한영신 등 8명의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대지면적 800평, 연건평 1천500평, 병상 60실, 지하 1층·지상 8층 건물로 신축된 문화여성병원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자연 채광과 경관, 조경을 아름답게 살려내 친환경 병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히 문화여성병원은 새 생명의 탄생을 가족들이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6개의 가족분만실을 만들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진통과 분만, 회복이 한 침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자연 분만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층에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산모 및 지역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